

야생동물의 농작물 습격

멧돼지·고라니 등 최근 5년간 828억원 피해 입혀

광주·전남북 120억 달해

최근 5년간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멧돼지로 피해액은 335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5~2009년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입힌 피해액은 모두 828억1000만원이었다. 2005년 피해액이 21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 185억5000만원, 2007년 166억원, 2008년 138억원, 2009년 127억2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의 피해액은 1억7800만원이었고 전남 82억3900만원, 전북 36억9000만원이었다. 동물별 피해액은 멧돼지가 335억4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였고 까치(166억9000만원), 고라니(129억2000만원), 오리류(48억8000만원), 꿩(28억3000만원), 청설모(25억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는 까치가 49만8812마리, 고라니 3만5820마리, 꿩 3만4695마리, 오리류 2만9054마리, 멧돼지 2만171마리였다. 농작물은 벼 피해액이 164억8000만원으로 최대였으며 채소(125억5000만원), 배(96억6000만원), 사과(96억5000만원) 등의 피해도 컸다. 농작물 외 피해분야는 전력시설(2089억원), 항공기(136억원), 양식장(127억원) 등으로 5년간 전체 피해액은 3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직장인 70% 한글날 공휴일 지정 희망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하는 날로 '한글날'을 꼽았다.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기념일은 10명 가운데 1명이 희망했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남녀 직장인 516명을 대상으로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하는 날'에 대해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71.5%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어버이날'(64.3%), '식목일'(59.2%), '제헌절'(50.6%), '국군의날'(23.9%), '스승의날'(20.6%)의 날 순이었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과 4·19혁명기념일은 각각 10.9%, 9.3%에 그쳤다.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공휴일을 통해 의미를 기념할 수 있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간공휴일이 너무 적다'(38.1%), '휴식이 필요하다'(14.2%)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청 건너편 버스승강장 상단부분에 설치된 LED조명은 정상 가동돼 주변까지 밝게 하고 있지만(왼쪽), 시청 정문 쪽의 승강장 LED는 꺼져 있어 인근까지 울새년스럽게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혈세만 축낸 승강장 LED조명

수천만원 예산 들여 도심 야경 살리다고 설치
고장나면 "예산없다" 보수 교체 안해 무용지물

광주시가 지난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구지역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야경용 LED조명 대부분이 수개월째 꺼진 채 방치돼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로부터 유지·보수 관리권을 넘겨 받은 서구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LED조명에 대한 보수 및 교체를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 어두운 버스정류장에 야경 조명 개념을 도입, 도심 야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LED조명이 애물단지가 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2곳, 삼구사민공원 2곳, 5·18 자유공원 2곳, 김대중 컨벤션센터 2곳 등 총 8곳의 기존 버스승강장을 '표준디자인 버스승강장'으로 교체 또는 신설했다. '표준디자인 버스승강장'의 설치비는 800여만원으로, 기존 버스승강장보다 30~4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시는 추가비용을 들여 승강장 내부 위쪽에 ▲하늘 ▲나비 ▲봉숭아 물 ▲민들레꽃 ▲물결 ▲태양의 춤 ▲무지개 ▲반딧불이 ▲빛의 조화 등 9가지 테마의 조명을 연출하는 LED조명등을 설치한 뒤, 서구에 관리권을 위임했다. LED조명은 버스승강장 기둥에 설치된 버튼으로 작동된다. 그러나 광주일보가 지난 11일 밤 서구 일대에 설치된 '표준디자인 버스승강장' 8곳을 확인한 결과 7곳의 LED조명이 꺼져있거나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다. 조명이 정작으로 작동하는 곳은 시청 및 은편 정류장 단 1곳 뿐이었다. 이 때문에 기존 버스승강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겉 모습만 그럴싸한 버스승강장'에 불필요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박모(51·서구 차령동)씨는 "처음 몇 달 동안은 버스승강장 위쪽에 형형색색의 예쁜 조명이 들어와 주변이 밝고 좋았는데, 3개월 전부터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표준디자인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 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로 현황을 파악하긴 하겠지만, 구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희중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6분 해질 18시 01분
달출 12시 18분 달질 22시 13분



종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0.5~1.0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1.0~1.5m	목욕	05:20	10:3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1.0~1.5m	여수	18:18	23: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1.0~1.5m	여수	12:47	05:5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1.0~1.5m	여수	--:--	19: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2	10/19	8/20	10/21	10/23	10/22

최근 4년 국립대 발전기금 2825억

전남대의 발전기금이 지방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07~2010년 10개 주요 국립대 발전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이들 대학의 발전기금 총액은 282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1457억원(51.6%)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압도적인 액수로 1위를 기록했다. 전남대는 250억원(8.9%)으로 국립대 가운데 2위, 지방 국립대 1위에 올랐다. 이어 경북대 230억원(8.2%), 부산대 212억원(7.5%), 강원대 203억원(7.2%) 등의 순이었다. 전남대 발전기금은 개인으로는 최근 양진석 전남대 서울 동창회장이 기탁해 온 10억원이 가장 많은 액수

서울대 1457억 1위 전남대 250억 2위

이며, 기업으로는 수년째 비공개를 전제로 매년 9억원을 내놓는 업체도 있다. 이들 발전기금은 대부분 장학 사업에 쓰이며, 대학의 시설이나 발전 사업에 사용할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들이 학교 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기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대학별 편차가 심하다"며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국·공립대학 교수 승진·정년심사 수년째 무사 통과

광주·전남지역 국·공립대학 교수 승진과 정년 심사에서 수년째 무사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국·공립대학 교수 4년간(2007~2010년)승진과 정년 심사 통과율이 10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교수, 조교수 등 직급별 승진 심사는 전남대 446명, 순천대 134명, 목포대 107명, 목포해양대 54명 등 심사 대상 전원일 '무사 통과' 했다.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 심사(2007~2009년)도 순천대는 신청한 86명 전원일 통과했으며 목포대는 38명, 목포해양대도 19명이 정년을 보장받았다. 전남대만 신청자 128명중 2008년 외국인 단 1명만이 탈락했다. 서울대 승진과 정년심사 통과율이 각각 94%와 85.7%인 것과도 큰 대조를 보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자녀들 학교생활 정보 실시간 확인

KT 아이스쿨 서비스 선택 케이션을 통해 시간표 및 식단, 아이 위치 찾기, 교육 뉴스 등의 부가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학급 내 학부모 간 통화 시 표준 요금 대비 통화료 50% 할인(10초당 9원)혜택도 제공한다. 아이스쿨 서비스는 먼저 초등 학교에서 서비스 도입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이후 해당 학교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입은 콜센터(1577-5753)를 통해 하면 되고, 11월부터 서비스 홈페이지(www.ktischool.com)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 홀 : 연인, 친구, 가족 (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직장회식, 계모임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편식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1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약(500석 완비)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출장뷔페 전문

